FAO, EU와 식량안보 공동대응

세계식량농업기구(FAO)와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는 2004년 12월 21일 로마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기로 합의하였다. EU와 FAO 사이에 맺어진 이번 협정으로 세계 20여개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 양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는 식량문제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, 기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.

양 기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1,500만유로 규모의 식량안보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세계 20여개국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, 이 프로그램은 세계 식량안보 현황을 조사·분석하여, 그 결과를 토대로 기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.

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국가들의 식량안보 상황은 매우 상이하여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. 에리트레아(Eritrea)와 콩고(Democratic Republic of Congo)와 같은 몇 개국들은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고, 라오스(Laos)와 말라위(Malawi) 등은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식량위험 상황에 처해있다. 반면에 타지키스탄(Tajikistan), 그루지아(Georgia) 등은 중앙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다.

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지구적 차원에서 식량위험 상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식량안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것이다. 이를 위해 개별 국가에서 수집한 현장 정보는 기아에 대

처하기 위한 세계 수준의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.

EU와 FAO의 합의에 대해 FAO 하르트빅 드 하엔(Hartwig de Haen) 사무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. “주어진 과제는 각 국가의 경험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, 전략적 교훈을 이끌어냄으로써,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식량안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더 나은 방향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 국가의 전통적인 식량 및 생활 시스템의 복원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.”

“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, 가장 시급한 가난과 기아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. 우리는 이를 통해서만 만성적인 기아 및 영양부족 문제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. 현재 세계 8억 5,200만의 인구가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.”

“FAO는 EU 집행위원회 및 개발도상국 정부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러한 파트너쉽은 2015년까지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세계식량정상회의의 새천년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.”

FAO와 EU 집행위원회간의 협력관계는 1991년 이후 계속되어 왔다. 양 기관은 총 예산 약 1억 800만 유로 규모의 116개 프로젝트의 이행을 통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.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게 식량안보, 농업, 산림, 수산업에 대한 기술적인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.

자료: 세계식량농업기구(FAO)

(채종현 pooh4514@paran.com 02-952-0729 지역아카데미)